

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코리아 설교 11회

11. 예수님의 근본적 신분

2010년 6월 5일(안식일 아침)

[빌2:5-8]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序;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구원의 경륜을 확실하게 가르쳐주신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과 아담이 여자라고만 이름을 지었던 자기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준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와라는 이름은 아담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이름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인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사망이 되어서 자기에게 맡긴 생명의 씨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통하여 아담 자기와 관계없는 한 생명이 생명 자체로서 남자를 경험한 일이 없는 여자에게서 사람이 되어 탄생하여 자기가 죽을 것을 대신 죽어주시길 것을 깨닫고 믿고 그것을 고백한 이름이라는 것을 아셨지요. 아담의 이런 신앙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룰지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결한 처녀에게서 탄생하셨고, 그것은 아담에게 근원을 둔 것이 아닌 예수님 자신의 근본적인 생명으로 생명의 씨가 되어 잉태하여 탄생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런 예수님의 근본적 신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자세히 들으시고 예수님을 성경이 계시하는 대로 알게 되는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1. 이전 있던 곳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자기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칠 때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양식이라고 하셨거든요. 5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수요 마리아의 아들인 아주 평범한 사람이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당황하고 수군거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요6:60-62]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 대 61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2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반응에 대하여 대답하시면서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있던 곳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는 말씀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사람 되어 오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신 분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였고, 예수께서 친히 그 사실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요17:5]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요한은 요한복음 1:1에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말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실을 신학적으로는 선재(先在)라고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는 없었습니다. 태어날 가능성으로 있었다고 주장하면 말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온전한 인격적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말씀 하나님으로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근본적 신분입니다.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서 아버지과 아들과 성령이 유일하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속14:9]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불리시는 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뿐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실 때에 “이름”이라는 단어를 단수를 썼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세분인데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할 때 이름은 단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한 이름을 가지셨다는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홀로 하나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삼위가 계시지만 삼위를 한 여호와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여호와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근본적 신분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이시요, 존재 자체이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탄생했는지 물었을 때에 헤롯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날 것인지 물었지요. 그때 불려온 종교 지도자들은 미가서 5:2의 말씀으로 대답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그들이 대답할 때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는 말씀을 빼버렸지만, 미가 선지자는 분명히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 라고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에 갓난아기로 탄생하신 그 분이 바로 상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런 분이 사람이 되어 아담 안에서 죽은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2.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아니면 아들의 위치를 취하신 것인지에 대하여서도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에, 무의식적으로 그냥 아들이니까 아들이지라고 생각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는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들이라는 칭호에는 벌써 예수님의 희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그분께서 세상에 계실 때 아버지라고 부른 그분과 동등이셨습니다. 예수님도 근본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들이라는 칭호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이 이 사실의 진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2:5-8]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비우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아담과, 아담과 함께 죽은 그의 모든 후손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아들의 위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가르쳐줍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때를 계시합니다.

[사9: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실 한 아기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본래의 신분이 무엇인지 잘 계시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 아기가 되어 세상에 탄생하십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예사로 그냥 읽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으면 이분이 언제 아들이 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라고 말씀합니다.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될 때에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아들 아기로 우리에게 주신바 되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류에게 주신바 될 때에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의 일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된 사실을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취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계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에는 이렇게 근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분의 낮추신 겸손이 배어 있는 칭호입니다.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 이미 아들이라는 칭호로 계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인류를 구속하실 것이라는 전제 아래 구속사적 의미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는 예수님을 영원한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것은 근본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면 안 됩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를 비어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하지 않으실 것을 전제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렇다고 말하면 이사야 9:6과 맞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에 그런 말씀에는 지극한 겸손이 배어 있는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그분이 구원할 인류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감히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발로입니다.

[롬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얼마나 엄청난 사랑입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담 안에서 죽은 우리들 살리기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아들의 신분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으니 말입니다.

3.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하여

예수께서 승천하실 사실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14:3-5]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4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5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삽나이까.

도마의 이 질문으로 예수님은 참으로 만고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요14: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에 대하여서는 언제 기회가 있을 때에 말씀 드려야 하겠지만 그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 집에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 후에 다시 와서 우리를 그곳으로 영접하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도마가 가시는 곳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느냐고 불평어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내가 그 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고 하셔야 대답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의미가 이 말씀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세상에 오신 것을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취하신 신분과 칭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후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영원히 간직하십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고 그 신분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칭호는 기업 칭호라고 합니다.

[히1:4,5]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5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예수님은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지 5절에 밝힙니다. 그것은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기업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터기자와 업업자입니다. 기초가 되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밀천이라는 말이라고 해도 됩니다. 근본이 되는 사업입니다. 기업은 원문 클레로노메오는 유산이라는 말입니다. 자식이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으면

그것으로 자기 사업을 흥왕하게 할 밀천이 됩니다. 그것으로 이윤을 많이 남기도록 비즈니스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들이라는 이름을 밀천으로 받았습시다. 왜요? 많은 아들을 이윤으로 남겨야 하기 때문입시다.

[엡1: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기 때문입시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습시다.

[요1:12,13]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가르칩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날 수 있게 되는 것입시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오셨는지 구원의 복음의 의미를 알 수 있지요?

예수께서는 원래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셨는데, 아들의 신분을 취하셔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히2:11,12]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12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입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롬8:14,15]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 이것은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땀 흘리는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을 부르신 칭호입시다.

[막14:36]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바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아빠라는 말과 같습니다. 천진한 아이가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어리광어린 음성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그런 칭호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엄 있는 아버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천진난만하게 사랑으로 대하도록 하신 칭호입시다. 친 아들이 부를 수 있는 칭호이지요. 친 아들이나 딸은 아버지를 그렇게 부릅시다. 그런데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그렇게 부르지 못하지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인 때문에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의 통치자 왕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우리들의 맏아들이 되셨습시다.

[히1:6]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서는 아담을 지구의 맏아들로 창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눅3:38]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에서 이상은 이라는 말은 아버지는 이라는 뜻이지요.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현대 번역들은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지구에 맏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맏아들의 지위를 사단에게 넘겨줘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시험의 광야에서 예수님께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감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눅4:5,6)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사단은 이 지구의 맏아들의 지위와 권리를 예수님께 넘겨주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시며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취하여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예수님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담 안에서 죽은 상태로 그냥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일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듭 나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신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생명이 생명의 씨가 되어서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나는 것임을 증거하는 탄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엡 4:22,23) 이런 모든 일이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삼위 중에 한 분께서 자기를 비어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부르며 경배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근본적인 신분이 어떠했는지 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그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지도 아시겠지요. 그것이 다 복음의 내용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생각할 때에 이런 깊은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겸손과 희생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귀한 신분으로 겸손과 희생의 삶을 살도록 성령의 힘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진리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랍고 기이한 섭리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세상에 보내셨으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신분을 접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합

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런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하여 당하신 예수님의 낮추심을 생각할 때 가슴 가득히 밀려오는 사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감격이 사랑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를 살도록 성령께서 마음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010. 5. 15(안) 9:11pm.

이 방송을 듣고 설교 CD를 원하시는 분은 626-374-9480으로 연락하시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설교자는 760-329-3846이나, 626-590-51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